



무등산풍경소리 두번째 앨범 출시

5년 음악 여정 고스란히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무등산풍경소리가 최근 두 번째 음반(사진)을 내놓았다. 지난 5년간 열여섯 음악회의 인연과 선율을 한 데 묶은 것. 5주년 기념음반 '풍경소리2'에는 그동안 음악회에 참여했던 음악인과 이야기 손님들의 목소리와 글, 음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음반을 틀면 손병희씨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2'를 시작으로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가 '꿈꾸지 않으면'을 간디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라이어랜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포크 라이브 가수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 한태주의 흠뻑 연주곡 '봄' 등 음반에는 총 18곡이 실려 있다. 한편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 무등산 중심사 취백루에서는 '무등의 가을바람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국악인 윤진철씨와 윤아평씨가 시인 이원규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와 '57회 무등산 풍경소리'를 진행한다. (062)526-1187 김주일 기자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광덕 스님의 시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국악교성곡이 무대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공연모습.

국악교성곡 '부모은중경' 18일 아람누리극장 무대에

아버님의 높은 은덕 하늘에나 경외불까 어머니의 중한 은덕 땅에다가 비유할까 하늘 은혜 땅의 은혜 그 은혜 오다 하나 부모님의 요신 은덕 하늘땅을 넘으시라 <부모은중경 중에서>

부처님은 <부모은중경>을 통해 한량없이 크고 깊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가르쳤다. 효의 공덕은 한결같은 말씀 하시더라도 이보다 헤아릴 수 없고 부처님께 공양함과 그 공덕이 같다고 하셨다. 이 시대 효가 갖는 의미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되새기는 공연이 열린다.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단장 김희경)이 11월 18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국악교성곡 '부모은중경'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인 것이다. 광덕 스님은 '부모은중경'의 가사를 쓰던 당시 '부처님이 비할 데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것도 다생(多生)동안 효도한 까닭'이라며 '효가 바로 인간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진실한 인간을 행하는 길이며,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길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곡은 특히 서양의 기독교를 전미하기 위해 바흐나 헨델이 만들었던 대합창 칸타타(교성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불교를 찬송하는 대규모 합창곡이다. 그래서 연주 규모도 크고 웅장하다. 이번 연주에서는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 천수천안불교합창단과 조계사 합창단 등 연합합창단(300명)이 입을 맞춘다. 남상일(국립합창단원)과 국악

인 배래리, 강효주씨 등도 솔리스트로 출연해 독창을 부른다. 총지휘는 김희경씨가 맡았다.

이에 앞선 1부 공연도 자못 흥미롭다. 최현진씨의 지휘로 천수천안불교합창단이 '환희의 출발'을 부른다. 이어 국악인 신영희 명창이 특별출연해 '심청가'를 선보인다. 또한 불자 가수 송준희씨가 '불교토를 향하여'를 선사한다. 마지막은 사물놀이의 달인 이광수씨가 민족음악단과 함께 나와 '마음을 깨우는 소리'를 주제로 한 사물놀이로 흥겨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천수천안예술포럼 총재 법승 스님은 "부모은중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님들은 오늘도 자신들을 위해 불선업을 마다 않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헤아리며 각 가정마다 '효'의 꽃이 가득 피워지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안정된 기량·독특한 음색의 조화

-니르바나 필하모닉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보고

"커지고 강해졌다." "훌쩍 자란 느낌이다." "감동적이다."

11월 7일 저녁 7시30분 여의도 KBS홀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마련한 소아암 어린이 돕기 다섯 번째 자선음악회가 열렸다. 장문환(안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씨가 지휘봉을 잡은 니르바나는 잘 다듬어진 곡과 안정된 금편을 바탕으로 풍부한 현악기의 사운드를 선보이며 대체적으로 다른 오케스트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음색을 만들어냈다.

1999년 창단 이후 수십차례의 공연을 거치면서 기량의 안정화를 이루었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독자적인 개성을 추구

지해씨의 해설과 다양한 타악기가 동원돼 독특한 색채와 동화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세 번째로 선보인 '슬라브행진곡'에선 터키 지베를 받은 슬라브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니르바나가 내뿜는 선율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졌다. 또한 하얀색 정장에 색소폰을 들고 나온 이인규씨의 영화음악 연주도 압권이었다. 끝이 잘 마무리되면서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의 음색과 뮤지컬 배우 뻘치는 차분하며 신들린 듯한 율동은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관객들은 흥에 겨운 환호성을 여기저기서 질러댔다.

니르바나는 영화음악의 조용한 결말에 아쉬움이 남았는지 앙코르곡으로 그



리그의 페르탄트 조곡을 선택해 공연장을 열광적인 분위기로 이끌었다.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는 특히 율해 서거 100주년을

맞아 더욱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공연을 끝낸 강현진 단장은 자랑스러움과 환희심에 북받쳤는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삼베를 울려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리고 이진규씨의 창작 찬불곡인 '내마음의 부처'를 마지막 선물로 보내 주었다.

불교계의 횡단 여건속에서 지난 10여년간 클래식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지평을 넓혀온 니르바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불교클래식 음악의 더 큰 가능성과 역량을 과시한 무대였다.

니르바나는 대규모 교향곡을 소화해 내며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이제 명실공히 불교 음악계 최고의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동국제강, 삼성전자, 하나은행 등 국내 7개 대기업 후원이 바로 그 증거다. 앞으로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니르바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임지기행 ㉞

재약산 내원암

-정인성 시인



내원암(內院庵) - 판사 승려였던 효봉 스님이 수행하던 표충사 부속암자이지만 지금은 찾는 발길이 드물어 적적한 기운이 감돈다. 그림 : 이상배 화백

살다보면 의로움 날이 있다
햇살이 휘도록 띄어날 날이 있다
그런 날엔, 아무렇게 지라나 풀한포기에게도
대칭하고 싶을 때가 있다

살다보면 그런 날이 있다
눈곱같은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여름 한철 풀포기를 가슴에 안고
젖꼭지들 내어준 햇살무리의
고운한 시선과 마주칠 때가 있다

그런 날엔 내 몸도
무엇인가 포근하게 안기고 싶다
깊은 산 그윽한 절집에 들어
입술이 보양토록 젖꼭지를 빨고 싶다.

불국사성보박물관 기금미련

김화수 화백 초청展

서예가이며 문인화가인 추진 김화수 화백의 서화 전시회가 11월 25일까지 경주 불국사 무설전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불국사 성보박물관 건립 기금 조성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왕죽도, 산수, 설경 등 30여점의 사군자 및 문인화와 10여점의 글씨 벽에 걸린다. 백색 한지에 골게 친 '왕죽도' 속의 대나무는 굳은 절개와 기상을 느끼게 한다. '목단'이란 작품 속에 들어 있는 빨간색 꽃잎과 노란색 화살들은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백색 한지에 골게 친 왕죽도.

일필휘지로 한 획에 그어 내려간 '불'은 작가의 돈독한 불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서화평론가 김중원씨는 "김 화백의 글과 그림은 내재적 의식의 발현에 기법적 재물이 어긋나지 않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이 시대 미학정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010)2320-0948 김주일 기자

알림 662호 문화면에 나갔던 예경화 불교회화전 전시회 날짜와 장소가 기재되지 않아 알려드립니다. 전시회는 11월 1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립니다.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도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지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루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제 효험이 있다.

황하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服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 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713-7798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루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 (본식 51160-150)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출간 !!!

심명 99절의 한 소설, 한 소설이 이름 그대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자비명명들이다. (...) 이 심명은 언어와 문자이면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는 주옥같은 법문이다. 한 소설, 한 소설에 담긴 범용 선사의 뜻을 잘 관조하여 영산회상에서 가슴 존자가 지었던 미소 짓길 바라마지 않는다.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심명 서문 중에서..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풀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연승.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 과 <바로보인 선문연승> 전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았다.

2-522-0122 www.zenparadise.com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로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ak.com